

농업 분야 완주-전주 상생발전 비전 발표

전주시농업기술센터, 완주·전주 통합 염원 담은 도시형·농촌형 농업 상생모델 구축 청사진 제시

전주시가 완주·전주 통합을 염원하며 도시형·농촌형 농업의 상생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강세권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박진상 완주·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위원회 위원장, 라승용 농업농촌분과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정례브리핑을 통해 △농업 분야 조직 확대 개편 △농업 재정 확보를 위한 매년 농업 예산 증가 △농업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농업 발전기금 1000억 원 조성 등 3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한 농업 분야 완주·전주 상생발전 비전을 발표했다.

이는 효율적인 통합시 운영을 위한 통합 시청사와 시의회 청사 등을 포함한 행정복합타운을 완주군에 건설하겠다는 첫 번째 상생발전 비전과 광역 생활권 구축을 위한 교통 분야 비전에 이은 세 번째로, 완주군민협의회에서 제안한 사업들을 반영해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시는 통합시의 출범과 농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업행정과 농업기술 조직을 이원화하는 농정조직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농업정책의 효과적 인 수립과 사업 총괄 기능을 전담할 '농업정책국'을 본격 직제에 신설해 농업 분야의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과



강세권 전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과 박진상 완주·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위원회 위원장, 라승용 농업농촌분과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정례브리핑을 통해 농업 분야 완주·전주 상생발전 비전을 발표했다.

예산 및 사업 관리, 농업 관련 정책 협업 등을 총괄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급변하는 농업환경 대응과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 해마다 연평균 7% 이상의 농업예산을 확대해 다른 정책에 비해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기준으로 전주시 농업예산은 696억 원, 완주군 농업예산은 1071억 원 수준으로 시는 오는 2030년 통합시 농업예산을 2500억 원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는 △기후 변화 대응 △농업 인구 고령화 및 감소에 따른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농촌 공간의 정주 여건 개선 △스마트팜 보급 확대 등 중요한 농업정책 과제의 안정적인 실행을 보장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끝으로 시는 통합시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향후 10년간 총 1000억 원 규모의 농업 발전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긴급 지원 △농업 경영 안정자금 융자 △농자재 등 농업 생산비 절감 지원 등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게 되는 기후변화와 시장 불확실성,

자원 부족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데 활용된다.

이와 관련 전주와 완주는 지리적으로 인접하면서도 농업적 특성이 상호 보완적인 지역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완주는 생산 중심의 농촌형 농업이 중심이고, 전주의 경우 가공·유통·소비 중심의 도시형 농업이 발달해 있어 향후 통합시 차원의 공동 전략이 수립되면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시는 향후 통합시 출범과 함께 농업 분야 상생발전 비전과 더불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특례에 따라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특화 및 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전주·완주 지역 내 농업 관련 산업 집적화 및 단지 조성을 목표로 국비 우선지원과 제도적 특례 확보에 노력한다는 각오다.

아울러 시는 전주·완주 통합을 통해 농업을 지역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 고부가가치 농업 생태계 구축, 기후 대응 농업 전환 등의 미래 농정 과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전략을 마련기로 했다.

특히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기후 위기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대응체계를 통해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공공도서관 정책’ 학계도 주목

전주시,서울대 석사 논문에 이용자 중심 건립·운영 사례 소개

전주시의 우수한 도서관 정책을 배우기 위한 국내외 기관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주시 공공도서관 정책이 학계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시는 서울대학교(건축학과 최혜조) 석사 논문에 이용자 중심의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 우수사례로 소개됐다고 8일 밝혔다.

이 논문은 다양한 사용과 경험을 중요시하는 도서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이용자 중심의 통합디자인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으로 이러한 혁신 조성사례로 전주시 공공도서관이 집중 소개됐다.

구체적으로 저자는 금암도서관과 다가여행자도서관 사례를 통해 기존 기능 중심의 공간 구성이 아닌 이용자의 이용 형태와 의견을 반영한 이용자 중심 공간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전국 최초의 트윈세대 전용 공간인 전주시립도서관 꽃섬의 '우주로 1216'과 서학예술마을도서관의 경우 전문가 의견과 함께 공간의 이용자인 트윈세대와 지역에



술가의 직접적인 참여로 공간이 기획된 우수 사례로 언급됐다.

학산숲속시집도서관의 경우 내부 공간 구성을 넘어 작은 저수지가 도서관과 맞닿는 외부환경과 확산 초입에 위치한 숲속 휴식 공간으로 도서관 내외부를 활용한 공간 조성의 사례로 소개됐으며, 저자는 지역공동체를 위한 시설로 확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구체화한 부분에 주목했다.

이 논문은 공공도서관을 더 이상 자료 이용과 기능의 중심으로 보지 않고, 이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관점에서 추진된 전주시의 공공도서관 전주시립도서관 꽃섬의 앞으로의 공공도서관 건립과 운영 개선 방향을 제안하기도 했다.

/권희성 기자

효자2동 새마을부녀회, 줍깅데이 진행

전주시 효자2동 새마을부녀회(회장 권현숙)는 관내 장성공원 일대에서 환경정화를 위한 새마을 '줍깅데이'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새마을부녀회 회원 10여명이 참여해 공원에 버려진 각종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잡초를 제거하는 등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권현숙 회장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에 버려진 담배꽂초, 쓰레기 등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는데,



환경정화 활동 후 깨끗해진 공원을 보니 마음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정화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송천초, 헌 옷 수거 캠페인 수익금으로 라면 기탁

전주송천초등학교(교장 서영태)는 지난 7일 교내학교 행사 중 '헌 옷 수거 캠페인'을 통한 수익금으로 라면 20상자를 덕진구 송천2동주민센터(동장 최용신)에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송천초등학교에서 주관한 '헌 옷 수거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수익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류, 가방, 신발 등을 모아 기증하고 이를 수거업체에 전달해 얻은 수익금



으로 전액 이웃돕기 물품을 구입하여 나눔을 실천한 것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 변혁 위한 핵심사업 국비 지원 요청

우범기 시장, 정부세종청사 찾아 기재부·국토부·과기부에 건의

우범기 전주시장이 정부의 예산 편성 시기에 발맞춰 주요 부처를 방문해 국가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우 시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주요 중앙부처를 상대로 전주시의 신규 핵심사업을 국가예산에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먼저 우 시장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찾아 예산실장과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등 주요 간부들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협력해 사회통합과 치유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립 모두예술 콤플렉스 건립' △균등한 문화향유 기



우범기 전주시장이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주요 부처를 상대로 국가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회와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국립 중앙도서관 문화예술특화 분관 건립' △유학 정신을 잇는 심신 수양 및 유교문화 대중화에 기여할 '간재선비문화수련원 조성' △스포츠가치 확산 및 체육활동 활성화 기여를 위한 '호남권 전주 스포츠가치센터 건립' 등 주요

신규사업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전주 국도대체우회도로(상관~색장) 구축사업과 관련해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을 만나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우 시장은 국토교통부를 방문

해 국토정책관과 면담을 갖고 △국도심 일원 역사문화공간 조성과 문화적 도시재생을 통한 창조적 공간 창출을 위한 '전주부성 복원·정비사업' △전사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호텔, 쇼핑센터 등 복합시설을 갖추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 인프라 구축에 중추적 역할을 할 '전주 MICE 복합단지 지역개발 공모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건의했다.

끝으로 우 시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문화과장과 소프트웨어정책관 등을 상대로 △지역의 주력산업과 역사가 융합된 지역특화 과학·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국립 전주전문화관 건립' △VR·AR·XR 인프라와 풍부한 문화유산 자원을 연계·활용한 '전북·전주 가상융합산업 콤플렉스 조성' △AI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업 AI 품질 향상하고 AX 생태계를 조성할 '인공지능(AI) 신뢰성 검증 허브센터 구축사업' 등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마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